

# 평형을 조율하는

## 하차연 작품론

### 1

2026년 독일 괴팅겐에서 개최되는 하차연 전시는 두 장소에서 선보인다. 한 곳은 고트마 슈트라세에 위치한 예술가의 집(Künstlerhaus)의 백색 홀(WeiBer Saal)이며, 이곳은 독일 계몽주의를 대표하는 물리학자이자 철학자 게오르크 크리스토프 리히텐베르크(1742-1799)가 강의했던 역사적 공간이다.

또 다른 곳은 예술가의 집 인근, 성 요하니스 교회(St. Johanniskirche)의 대형 홀이다. 세속화 과정을 거치며 종교적 기능은 상실했지만, 문화적 전시 공간으로 활용됨으로써 현대적 의미와 역사성을 동시에 지닌다.

프랑스에 거주하는 한국 출신 작가는 두 장소에 작품을 설치하여, 관람객이 그녀의 작업 세계와 예술적 성격을 입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 2

전시 제목은 독일어로 「Zum Gleichgewicht」, 프랑스어로 「À propos de l'équilibre」이다. 단순한 미학적 표어가 아닌, 하차연의 예술 전반을 관통하는 핵심 문제의식을 직접적으로 드러낸다. 평형의 탐색은 예술적 형식일 뿐만이 아니라 그녀의 삶의 방식 자체를 규정한다.

작가는 1983년, 아직 젊은 나이에 조국을 떠나 프랑스의 푸아티에와 님르에서 수학하였다. 이후 브라운슈바이크에서 학업을 이어갔고, 1990년대 중반에는 하노버에서 거주하다, 2002년 다시 프랑스로 돌아가 현재까지 작업하고 있다.

이 모든 시간은, 서로 다른 언어와 국가, 문화 사이를 항해하며 그들 사이의 균형을 찾아야 하는 도전에 스스로를 내맡기는 과정이었으며, 결코 쉬운 과제가 아니다. 물론 풍요로운 경험이 될 수는 있지만, 이들 국가의 삶의 실천, 정신적 기질, 가치 체계는 여러 측면에서 서로 상이하기 때문이다. 작가는 이러한 상황에 오늘날까지도 탁월하게 부응해 왔으며, 그 결과 자신의 모국 문화와 프랑스 및 독일 문화 사이를 잇는 매개자가 되었다. 이는 작가를 조금 더 가까이에서 알게 되는 특권과 기쁨을 누린 모든 이들이 기꺼이 확인해 줄 사실이다.

### 3

평형은 하차연 예술의 핵심이자 결정적 요소이다. 그녀의 작업은 매일같이 이상과 현실, 시적 차원과 정치적 차원, 자유와 필연 사이를 매개하며, 서로 상반되는 관점들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내는 과제를 수행한다. 이는 무엇보다 고도로 비상하는 예술적 기획들을 단지 사유하고 상상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것을 실제로 실현해야 함을 의미한다.

오스카 와일드는 “꿈꿀 줄 아는 자만이 현실주의자이다.”라는 격언을 남겼다. 그러나 예술의 본질은 이러한 꿈에 형상을 부여하는 데 있으며, 단지 상상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실천으로 옮겨야 하는데 있다. 예술가들의 관념적 창백함을 이미 베르톨트 브레히트는 다음과 같이 풍자한 바 있다.

“위대한 정신들의 삶을 찬양하지만,  
그 삶은 책 속에만 있고 배 속에는 아무것도 없다.  
쥐가 갇혀먹는 오두막에서,  
그런 허황된 미사여구로는 나를 괴롭히지 말라.”

행동력의 결여나, 자신이 살아가는 시대의 사회적 조건과 현실에 대한 통찰의 부재를 하차연에게 돌리기는 어려우며, 그녀의 예술은 사유와 실천 사이에서 끊임없이 평형을 탐구하고 조율하는 과정들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미하엘 슈퇴버 (Michael Stoeber) 하노버, 2026 년 2 월